특급! 시베리아횡단열차 러시아 연해주를 찾아서! 4일
3월 28일 출발
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승리 쇼크’에 등 돌린 팬심…‘빅뱅 해체’ 국민청원까지

승리 은퇴 ‘빅뱅’의 앞날은?

탑·GD 이어 승리까지 사회적 물의
2006년 데뷔 이후 최대 위기 맞아
YG 측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어”
승리, 입대 전 추가 경찰 조사 예정

그룹 빅뱅의 승리가 11일 성 접대 의혹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파문에 휩싸여 돌연 연예계 은퇴 선언을 내놓은 뒤 빅뱅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2006년 가요계에 데뷔하자마자 그해 신인상을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한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인사’ ‘뱅뱅뱅’ 등 ‘메가 히트곡’을 잇달아 내놓으며 케이팝 스타로 성장해왔다. 멤버 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입대하며 팀 활동에 잠시 공백을 맞았지만 올해 탑을 시작으로 나머지 멤버들이 차례로 제대해 솔로나 유닛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멤버들이 휘말린 잇단 논란으로 그룹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질타도 쏟아지는 상황에서 원활한 활동을 펼치기 어려워졌다. 특히 승리 관련 사건으로 빅뱅의 팬덤은 분열했고, 일부에서는 “범죄로 얼룩진 빅뱅을 해체시켜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

앞서 2017년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드래곤도 2011년 일본 투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드래곤은 상습 흡연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멤버들의 잇단 논란으로 빅뱅은 향후 그룹 활동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승리가 은퇴를 선언한 것 역시 빅뱅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소속사 YG와 은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빅뱅의 멤버들과도 사전에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G 측은 12일 “(은퇴)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라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25일 입대 전까지 한 두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멤버들이 잇달아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룹 빅뱅도 위기에 처했다. 승리의 성 접대 의혹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빅뱅의 팬덤도 분열하고 있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SM·JYP 주가까지 삼켜버린 승리

불안감 확산…엔터 대장주 폭락
YG는 ‘공매도 과열 종목’ 수모도

승리 파문으로 인해 엔터업계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특히 SM, JYP, YG 등 업계 대장주격인 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우선 승리 소속사인 YG는 12일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전날인 11일 주가가 14%나 폭락하면서 추가하락을 기대하는 공매도 세력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신용거래로 주식을 빌린 뒤 결제일 안에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매입해 돌려주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자체가 시장이 기업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한때 엔터업계 시총(시가총액) 1위까지 노렸던 YG로서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8일 종가 기준으로 7865억 원이던 YG의 시총은 12일 종가 기준 6529억 원까지 빠졌다. 11일 3만7150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23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원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는 12일 3만7000원대마저 무너지며 3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M과 JYP 역시 승리 파문의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클럽 버닝썬 논란-성접대 의혹-몰카 파문으로 시태가 확산되면서 엔터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적 부진까지 겹친 SM은 12일 전날보다 3.7% 하락하며 주가 4만 원대가 무너져 3만9050원(시총 9002억)을 기록했다. 트와이스 일본 돔투어, 신인그룹 있지의 등장 등 호재가 더해지며 엔터주 리스크 대안 종목으로 꼽히던 JYP 역시 12일에는 4% 넘게 하락하며 2만9950원(시총 1조600억)에 장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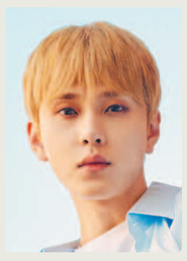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친하다는 이유로…동료스타들 불똥 우려

‘정준영 몰카 단체대화방’ 인물 거론
용준형 부인…이홍기도 “걱정마쇼”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의 승리가 각각 성범죄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와 관련해 걸그룹 멤버 등 일부 여성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된 ‘지라시’가 나돌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연예인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12일 정준영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날 그 피해 여성으로 일부 걸그룹 멤버와 연기자들의 이름이 담긴 사설정보지, 일명 ‘지라시’가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은 “악성 루머”라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용준형

이와 함께 정준영, 승리 등이 참여한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는 인물로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 FT아일랜드 이홍기, 강다니엘 등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용준형의 경우에는 11일 SBS ‘8뉴스’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수 용○○’이라는 자료화면을 띄워 일부 누리꾼이 그를 해당 인물로 특정했다. 이에 용준형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와 관련이 없고, 해당 채팅방에도 없었다”며 “정준영과 친구인 건 맞지만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연루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기는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12일 새벽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구만”이라며 “걱정 마쇼”라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정준영과 승리의 절친 목록’이라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일부 스타들이 이들과 각종 모임에 참석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 사건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정준영과 승리는 각별한 사이이다. 두 사람 모두 본업인 가수 외에 사업을 벌이는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교류하고 있다. 서로를 통해 인맥을 넓히는 것은 물론 일본 도쿄의 한 인타운인 신오쿠보에 주점을 열고 FT아일랜드 최종훈과 함께 공동 경영을 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존재했던 이 주점의 SNS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윤지오, 장자연 사건 참고인 조사


윤지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연기자 윤지오가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지오는 이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자연의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라며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자연 언니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최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책 ‘13번째 증언’을 펴냈다.

몬스타엑스, 내달 월드투어 포문


몬스타엑스

그룹 몬스타엑스가 4월 월드투어 포문을 연다. 12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4월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위 아 히어’(WE ARE HERE) 공연을 연다. 서울 공연은 지난해 8월 월드투어 ‘더 커넥트’ 앙코르 공연 이후 8개월 만이다. 몬스타엑스는 정규 2집 ‘테이크.1 아 유 데어?’와 ‘테이크.2 위 아 히어’ 등 2장의 앨범을 내고, 세계 20개 도시 총 25회 월드투어를 펼쳤다.

마동석·박정민 등 ‘시동’ 캐스팅


마동석 박정민

배우 마동석, 박정민, 정해인, 염정아가 영화 ‘시동’에 출연한다. 조금산 작가의 인기 웹툰을 토대로 한 영화는 어설픈 반항아 택일(박정민)과 상필(정해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다. 박정민은 단 3만원을 들고 무작정 가출했다가 우연히 중국집에 정착하는 고택일 역을 맡았다. 정해인은 택일과 가까운 동네 친구 상필을 연기한다. 마동석은 택일이 일하게 된 장풍반점 주방장으로 택일과 티격태격하는 역할이다.

김성은, MBC ‘휴먼다큐’ 재능기부


김성은

연기자 김성은이 재능기부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김성은은 14일 방송하는 MBC 드라마넷 ‘휴먼다큐 사랑+’ 내레이션을 맡고 부모와 이별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 소봄이의 사연을 소개한다. 김성은은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세 식구에게 내레이션 참여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영석 PD “루머? 모두가 공범”


나영석

나영석 CJ ENM PD가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거짓인 걸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 고소해야하는 상황이 기쁜 일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나영석 PD는 12일 마포구 상암동 한 호텔에서 열린 tvN 새 예능 ‘스페인 하숙’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연기자 정유미와 휘말린 루머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며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